

# “스승 뜻 이어 유관순 동상 저희가 제작했죠”



고 김행신 교수가 추진하던 유관순 동상 김대길·박정용 전남대 교수 등 작업 이어가 “스승이 남긴 선물...제자들과 한마음으로 제작” 서대문역사공원에 설치...김행신 장학금 조성

그는 떠났지만, 여전히 작업실 불빛은 켜져 있다.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작한 조각상, 손 때 묻은 작업 도구들, 추억이 담겨 있는 오래된 사진, 작업하다 지친 몸을 누웠을 낡은 소파, 모두 그대로다. 하나 달라진 건, 이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들이다.

지난해말부터 광주시 북구 용봉동 고(故) 김행신(1942~2019·전남대 명예교수) 조각가 작업실에서는 대형 유관순 동상 제작 작업이 한창이다. 오는 5월 서울 서대문역사공원에 세워질 동상이 다. 제작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는 고인의 제자인 김대길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박정용 교수, 박형오·윤종호 강사,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 이다.



고 김행신 교수

이번 동상 작업은 광주·전남 조각 1세대 김행신 교수에서 출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와 유관순 순국 100돌을 맞는 2020년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지난 10월 질병에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별세하면서 계획이 유야무야될 상황에 처했다. 이 때 홍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모교인 전남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딸 김시내 조각가가 김대길 교수에게 상의를 했다. “아버지가 작업하시려던 것인데 완성되면 좋겠다”며.

이후 김 교수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머물러있던 조각상 제작을 추켜들고 다시 기념사업회 이사회 설명 절차를 거친 후 제자들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실에서 만난 유관순 동상은 다부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강한 의지와 결기가 담긴 모습에 숙연해진다. 오른손에 태극기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조각상은 4m 높이로 폭은 1.8m다. 김 교수 등은 ‘동양의 잔다르크’라는 컨셉을 잡고 ‘대한독

립’이라는 굳은 의지를 담은 모습을 역동적인 동작으로 표현해 냈다. 또 뺏속까지 스며 있는 민족의식과 함께 부모를 잃어버린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은 맨발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고증은 복식전문가 순천대 양숙향 교수, 이태호 명지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작품이 설치될 서대문독립공원은 옛 서대문형무소 자리다. 1919년 5월부터 이듬해 9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유관순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 곳이어져 더 의미가 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여러 이미지 중 연민보다는 강함을 표현 하려고 했습니다. 조각상 작업은 야외 공간에 놓여지는 상황까지를 감안해 비례와 빛의 위치 등까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작업 이죠. 유관순 조각상은 장충동 등 서울의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번에 서대문형무소 자리는 ‘꼭 세워져야 할 자리’라는 생각입니다. 후대에 각인되는 작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대길 교수가 스승을 만난 건 1976년 봄이다. 당시 김대길 교수는 전남대 미술교육과 2학년이었고 김행신 교수는 서울에서 막 내려와 시간강사를 맡고 있을 때였다.

“제 조각 인생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죠. 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스승이 좋은 선물을 남기고 간 거라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공간에 전남대학교 출신들의 작품을 세울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전남대 출신 조각가들이 리얼리티에 강하고 손질이 매섭다는 건 전국에서 다 인정해주죠. 하지만 지방대학이라는 이유로 한계가 있는 점도 있는데 이번에 스승이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신거죠.”

스승의 사랑은 제자에게 이어져 더 큰 사랑으로 발전한다. 5월 조각상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익금의 일부로 ‘김행신 장학금’을 조성해 전남대 후배 조각가들을 지원, 김행신 교수의 뜻을 이어갈 생각이다. 또 김행신 교수의 제자인 윤익 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등이 고인의 작품 정리와 아카이빙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흥 출신인 김행신 교수는 독학으로 공부해 서리벌 예고와 서리벌 예대를 졸업했다. 활발한 작업활동과 함께 광주·전남 조각계를 이끌 후학들을 길러내며 교육자의 역할을 한 그는 브론즈, 대리석 등 다채로운 재료를 자유자재로 활용,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으며 한국적 여인상과 가족상 등 토속적인 인물들을 조각으로 구현했다. 대표작으로 제2군 하사관학교 승전탑, 해남 토말탑, 88올림픽 광주조형물, 남도학숙 환경조형물 ‘여인’, 광주 무등빌딩 조형물 ‘무등의 여인’ 등이 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독립영화관 내일 재개관

27일 봉준호 ‘지리멸렬’ 상영, ‘이장’ 개봉도

코로나 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광주독립영화관(관장 윤수안)이 20일부터 영화 상영을 다시 시작한다.

지난달 휴관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독립영화 클래식 I’이 오는 27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독립영화관이 올해 두번 째로 준비한 기획프로그램으로 주제는 ‘그들의 시작도 독립영화였다’다.

봉준호 감독의 초창기 단편영화인 ‘지리멸렬’과 임순례 감독의 ‘우중산책’ 그리고 김대현 감독의 ‘지하생활자’를 만날 수 있다.

영화 ‘이장(사진)’은 25일 개봉한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묘 이장을 위해 오남매가 모여 오랫동안 집안에 뿌리박힌 차별을 워트 있고 날카롭게 그려낸 영화다.

영화는 아버지의 묘 이장을 위해 모인 네 자매에게 “어떻게 장남도 없이 무덤을 파냐”고 소리치는 큰아버지의 불호령을 통해 가부장제의 모순을 드러내며 육아휴직과 퇴사 권고를 동시에 받게 된 장녀 혜영(장리우)이 처한 현실부터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셋째 금희(공민정)의 모습은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꾸밈없이 보여준다.

영화는 개봉 전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CGV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 제35회 바르샤바 국제영화제 신인감독경쟁 대상 및 넷팩상, 제8회 바스타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대상을 받으며 작품상을 인정받았다

이밖에 ‘하트’, ‘기도하는 남자’, ‘기억의 전쟁’, ‘잔실이는 복도 많지’, ‘늑차의 중력’, ‘백두 번째 구름’도 상영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7월로 연기

코로나19 여파...세부일정 추후 공개

상반기에 열리는 대표적 음악 행사 중 하나인 제32회 교향악축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연기됐다.

예술의전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교향악축제가 오는 7월로 연기됐다고 18일 밝혔다. 교향악축제가 연기되는 건 처음이다.

예술의전당은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 17개 교향악단과 1개 해외 단체를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에 일정을 하반기로 미뤘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질 교향악축제의 세부 일정과 출연 단체 및 협연진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의전당은 4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공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클래식 팬들을 위한 위로...금호아트홀 온라인 연주 나눔

음악인들 재능기부...23일부터 ‘유스퀘어 클래식’ 통해 공개

유스퀘어 금호아트홀이 계속되는 코로나19사태로 지친 클래식 팬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연주 나눔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연기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 외출을 줄이고 자발적 격리생활을 하는 클래식 팬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스퀘어 금호아트홀과 인연이 깊은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이번 ‘희망 클래식 릴레이’는 유튜브와 팟캐스트(팟빵)에 개설된 음악 채널인 ‘유스퀘어 클래식’을 통해 공개되며 약 10팀 정도 참여할 예정이다. 23일부터 약 두 달간 매주 2-4

곡이 업로드 된다.

첫 순서는 호신대 임해철 교수(베이스)의 무대로 꾸며진다. 차이코프스키의 가곡과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 한국 가곡 등 총 세 곡을 노래한다.

이외에도 금호 주니어콘서트 시리즈 1회 연주자인 피아니스트 최현호, 우리 지역 전문 연주 단체인 앙상블 마주엘의 리더 김도연(바이올린)의 연주가 예정돼 있다.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관계자는 “많은 연주자가 기쁜 마음으로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번 희망 클래



금호아트홀은 연주 실황을 녹화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식 릴레이가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CES  
2016 INNOVATION AWARDS

BIG INNOVATION  
2017 CHAIRMAN'S CHOICE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